

<음성 스크립트>

<1>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관 및 건축 소개 (약 45초)

2015년 11월,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었습니다. 5.18 민주광장에 위치한 정문을 통해 계단을 내려오면 거대하고 아름다운 중앙 광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광장은 역사적 공간인 구 전남도청(현 민주평화교류원)과 어린이문화원부터 아시아문화정보원, 문화창조원을 거쳐 아시아예술극장까지 이어지는 대형 구조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.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장소, 아시아문화광장에 누워 미디어월과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?

<2> 공공미술 (약 45초)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‘일상과 예술이 하나 되는 공간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쉽고 공공미술을 결합한 문화예술적 소통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민주평화교류원 옆에 위치한 안내소에서는 스탠딩 테이블 작품 <Heavenly Heaven>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탁 트인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광주를 희망의 도시로 해석한 공공미술이자 포토스팟 <빅토리!>를 볼 수 있습니다.

아시아문화정보원 내부에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 작품이 아닌, 관람객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체험형 공공미술 <리플렉시티>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편안하고 독특한 벤치에 앉아 대나무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

<3> 시민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(약 45초)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파란 하늘과 푸르른 잔디마당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‘하늘마당’입니다. 그랜드 캐노피에 앉아 시민들이 사랑하는 ACC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하늘마당에서 걸어 내려오면 나무와 꽃이 심어진 정원과 네모 형태의 유리 채광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밤이 되면 채광정이 건물 내부의 빛을 머금고 ‘빛의 도시 광주’를 구현합니다.

하늘마당에서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ACC의 자연 공간에서는 봄과 여름에는 푸르른 자연을, 가을에는 단풍을, 겨울에는 고즈넉한 눈 쌓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서 | 2021 ACC 오디오 투어 공모전 신청서

20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디오 투어 공모전 신청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성명 | |
| 생년월일 | |
| 연락처 | |
| 주소 | |
| 개인 SNS 업로드 링크 (선택) | |

상기 본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
‘2021 ACC 오디오 투어 공모전’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1년 월 일
신청인 : (인)

- ※ 첨부서류 : ACC 오디오 투어 스크립트 녹음 파일
- ※ 참고 : 당선작에 대한 저작·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귀속됩니다.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공모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으며,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공모전에 공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된 후 즉시 폐기됩니다.

동의합니다 () 동의하지 않습니다. ()